



## 우리 말로 통합체육을 철학함\*

이 학 준\*\*

### Philosophy of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in Korea

Lee, Hak-Jun\*\*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our food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Method]** To this end, I examined the philosophy underlying certain Korean dishes and explored their implications for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Results]**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I can learn from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that underlie kkakdugi, bibimbap, and gomtang. Of course, philosophical implications could be found in our foods, and those other food might be explored in later studies. Kkakdugi, bibimbap, and gomtang teach togetherness, harmony and patience, respectively. First, kkakdugi possesses a philosophy of being together, which implies that we can play in a group without fear of exclusion or alienation. Second, bibimbap possesses a philosophy of harmony; this dish reveals the aesthetics of harmony through the mixture of ingredients to create a unique taste. Third, gomtang possesses a philosophy of patience; it is necessary to wait for other team members to show their abilities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Conclusion]** These three philosophies can be applied in e-sports. The philosophy of togetherness, harmony, and patience may have useful application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and e-sport.

**Key Words :**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Kkakdugi, Bibimbap, Gomtang, Esports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099920).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sportia2000@hanmail.net)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the Korea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특수교육이나 특수체육에서 철학적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었다(김병하, 2019, 2021; 이학준, 김남진, 김용욱, 2017; 이학준, 김용욱, 2019). 특수교육과 특수체육은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철학과 관련성이 깊다. 교육철학은 어떤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며 그리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며 그 답을 찾는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는 교육철학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교육철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법도 다르다.

철학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포장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지만, 철학은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 비판적 분석력,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에서 다른 학문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철학은 철학적 사유를 한다는 점에서 철학이라는 명사보다 철학함이란 동사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철학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는 것이다. 철학함은 성찰과 비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성찰적 비판 또는 비판적 성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통합체육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다. 성공적인 통합체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성찰적 차원의 인식 전환과 비판적 차원의 제도개혁이다. 인식 전환과 제도개혁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문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단과 처방이다. 진단은 어떤 문제나 사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는 일이다. 처방은 원인에 대응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일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역시 잘못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진단이 중요하다. 처방은 개인의 관점을 전환하는 인식 전환과 사회 제도를 개혁하는 제도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 인식 전환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라면, 제도개혁은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 문제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일시적인 해결을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인 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합체육의 철학함을 다룬다. 철학은 명사보다 동사에 가깝다. 그러므로 철학보다는 철학함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통합체육을 대상으로 철학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통합체육이 연구의 대상이고 철학이 연구의 방법이다. 통합체육의 철학함은 통합체육의 존재, 인식, 가치를 철학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말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우리 말은 오랫동안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수 우리말을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순수 우리 말을 담고

있고 매일 먹는 우리 음식에서 통합체육의 철학함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인 통합체육 수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통합체육 수업을 관찰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물음이란 방식을 통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이다.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리는 진단은 오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반복된 착오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말, 우리 철학을 담고 있는 우리 음식에 관한 통합체육의 철학함을 시도하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먹고, 배설하고, 잠을 잔다. 먹는 것에서 기운을 얻는다. 생활 세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운(힘)을 발휘하며 산다. 기운은 에너지이며 음식 섭취를 통해서 얻는 힘이다. 이러한 힘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은 받은 음식(채소, 육류, 해산물)에서 얻는다. 인간은 자연의 기운을 얻고 기운차게 산다. 기운이 빠지면 몸의 힘이 없고 항상성이 깨져 질병에 걸린다. 이는 음식만이 아니라 인류 만물에 작동하는 기의 운영 체계이다. 이러한 음식에 작동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우리 음식을 대상으로 철학함을 통해 통합체육 철학의 함의를 밝히려고 하였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먹고 그 기운으로 살아오게 한 우리 음식에서 통합체육의 철학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깍두기’, ‘비빔밥’, ‘곰탕’이 담고 있는 통합체육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말로 왜 통합체육을 철학함인가? 둘째, 우리 말(음식 용어)의 통합체육 철학적 함의는 무엇인가이다.

## II. 우리 말로 왜 통합체육을 철학함 인가

우리말로 철학하기가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철학은 외부로부터 수입한 학문이다. 물론 국내에서 철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도 중국철학을 수용하여 정립한 철학이 있었다. 해방 이후 철학은 대부분 독일철학, 영미 철학을 일본을 통하여 수입한 학문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일본학자들이 번역한 번역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번역어는 우리 일상용어와는 거리가 먼 학술용어이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일상 용어에는 풍부한 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중에서 순수한 우리말로 통합체육 철학하기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언어로 보고 말하며, 우리의 언어로 이론을 정립하고, 우리의 언어로 사유를 하라는 것이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눈이다. 그간 우리는 남의 눈을 빌려서 우리의 세계를 보려고 안간힘을 쏟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저질렀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이기상, 2004: 31).

위의 인용문처럼 우리 말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우리 말로 통합체육을 철학 하기는 학자 간, 학자와 대중 간의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학문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가려운 곳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통이 안 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 학자들의 지적 유희일 뿐이다. 우리 말을 사용해도 학문 용어 자체가 외래어 또는 한자로 된 전문용어로 되어 있기에 소통하기 어렵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소통이 어려워 오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학술용어가 일상용어가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상용어는 소통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해도 빠르게 한다. 이외에도 우리가 왜 우리 말로 철학함이 필요한가를 다음의 인용문에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현대화라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서양을 추종하는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근대와 탈 서양을 외치는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이 땅,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내려 중심을 굳건하게 잡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이기상, 2004: 9)

그동안 우리 학문, 우리 철학은 외국 수입 철학에 의존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에서 철학을 배워 한국에 소개하는 철학 수입상의 역할이었다. 우리와 관련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은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는 분위기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문화가 과거의 유산이며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서양은 근대, 조선은 구태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탈근대와 탈 서양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다. 단순히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바꿔야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말로 통합체육의 철학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말로 학문 용어로 사용하며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철학의 빈곤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론과 실천, 사유와 현실, 치유와 비판을 제대로 매개해야 하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철학 하기, 즉 진정한 ‘철학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김석수, 2015: 303).

우리의 말로 보고 말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세계를 보는 눈이다. 우리 말로 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문을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말의 소중함을 잊고 학문은 한자어나 외국어로 해야 한다는 학문적 사대주의 성향이 있었다. 우리는 우리 말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이다.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 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말로 우리 학문을 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 학문, 우리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말을 담고 있는 우리 음식을 대상으로 통합체육의 철학적 함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 Ⅲ. 우리 말의 통합체육철학적 함의

우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도구이다. “음식에 이름에 담긴 의미들은 오늘날 사회와 세상의 가장 솔직한 풍경이 된다”(한성우, 2010). 그중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순수 우리말에 집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음식으로 깍두기, 비빔밥, 곰탕이 있다. 일상에서 매일 먹는 음식에서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음식에서 기운을 얻어 기운찬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해 풍성한 의미를 담은 행동으로 실천하게 한다.

#### 1. ‘깍두기’와 다함께의 철학

‘깍두기’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부터 먹었는지 알 수가 없다. 깍두기의 역사는 음식의 문화사에 관한 연구성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무김치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나박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무청 김치 등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총각김치는 <산림경제>에서 처음 소개되는 김치로 무와 무청을 함께 담은 요즈음의 총각김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의 각종 깍두기가 이와 유사한 방법인 것으로 보아 그 담금 방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윤서식, 1988: 89). 이러한 깍두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 시

를 살펴보자.

미끈한 놈을 골라잡아  
네모 반듯 잘라내어  
허벅지 살이  
흰히 내비친다,  
부끄러워  
한 줌 눈물을 흘리는 놈들만  
골라잡아 서럽도록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짠 내 한 바가지 들이본다,

이제 체면은  
남지 않았다,  
하얀 속살 안으로  
한없이 치욕이 스민다,

눈 시리도록 매운 것들로만  
옷을 덮어 주었다,  
눈물겹도록 짠 내 나는 것들로만  
이불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는 살짝 감싸주었다,

이제  
또 하나의 놈들이  
태어난다, (이준호, 시인)

‘각두기’라는 음식에는 함께하기의 철학이 담겨 있다. ‘각두기’는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각두기는 무를 바둑판처럼 썰어서 고춧가루와 양념을 넣고 함께 섞은 김치의 일종이다. 우리 놀이문화에는 각두기라는 말이 있다. 나이, 능력, 성별에 관련 없이 함께 놀았다. 소외나 배제는 없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빼지도 않고 함께 놀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각두기라는 음식과 놀이문화에 함께하기라는 철학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이학준, 2019).

하지만 현재, 이런 놀이문화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골목길에서 놀이하는 아이들, 공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함께 만나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사라져간다. 깎두기는 차별과 배제 없는 모두가 함께 노는 문화이다. 이러한 놀이문화는 통합체육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성공적인 통합체육은 함께 하는 놀이이며 수업이다. 장애 유무를 떠나 함께 하는 놀이문화이다. 이와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D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발달 장애아동 3명과 비장애 아동 33명을 대상으로 아침놀이 및 중간놀이 시간에 「깎두기」가 있는 전래놀이를 하였다. 발달 장애아동 1명과 비장애 아동 11명이 각각 한 팀으로 발달 장애아동이 「깎두기」가 되어 2~3주간 10회의 전래놀이를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발달 장애아동 2명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부정적 상호작용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발달장애 1명은 긍정적 상호작용 및 부정적 상호작용의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둘째,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소라, 해주현, 2019: 127).

위 인용문에서 놀이에서 ‘깎두기’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놀이문화에서 ‘깎두기’는 훌륭한 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 놀이에서 오늘날의 왕따와 같은 것은 없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놀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통 놀이에서 ‘깎두기’는 배제나 소외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장애, 나이, 성별과 관련 없이 함께 놀았다. 발달 장애아동에게 ‘깎두기’ 역할을 부여하여 비장애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비장애 아동의 장애 수용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음식이 담고 있는 의미와 깨달음을 살펴보았다.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그동안 살피지 못했다. 먹고 영양분을 얻어 기운찬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음식은 세상살이에 많은 위로와 도움을 주는 철학을 담고 있다. 그 철학은 음식과 함께 우리 몸에 기운으로 생각을 변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통합체육 수업에서 활용할 e스포츠와 연계하여 알아보았다.

e스포츠와 함께하기이다. 대표적인 e스포츠로서 롤이 있다. 롤(리그 오브 레전드)은 라이엇 게임즈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Multiplayer Online Battle Arena, 약칭: MOBA) 비디오 게임이다. 5명으로 구성된 양팀이 상대방의 넥서스를 파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팀 스포츠이다. 팀 스포츠는 구기 스포츠가 대표적이다. 11명이 하는 축구, 9명이 하는 야구, 7명이 하는 핸드볼 등 종목의 특성에 맞게 선수를 구성한다. e스포츠 역시 오프라인에서 혼자이지만 e스포츠를 할 때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팀을 구성하여 펼치는 단체 스포츠이다. 단체 스포츠의 특성은 특출난 사람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함께하기 철학이 중요하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에 협력과 배려가 먼저 필요하다.

협동적 게임은 협력과 수용, 함께 하기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네 가지의 특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적 게임의 인성 관련 개념들은 인성 발달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형인 스포츠 교육모형, 협동학습, 책임감 모형 그리고 하나로 수업 등에 제시된 개념들인 바람직한 자아상, 자기 존중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참여와 노력, 협응력, 반성, 규칙 준수, 기본 예의 등과 그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협동적 게임은 게임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과 아울러 인성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식, 박대권, 2012: 625).

e스포츠는 협동적 게임으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선입견으로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었다.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해도 부정적 인식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가 하는 무엇이든 그 자체의 장단점이 있다. 빛과 그림자는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e스포츠 역시 예외가 아니다. e스포츠는 게임중독과 시간 낭비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한다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e스포츠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이학준 외, 2020: 28). 문제는 통합체육에서 e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목적에 맞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 2. ‘비빔밥’ 과 어울림의 철학

‘비빔밥’ 이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는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비빔밥의 역사>라는 선행연구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비빔밥’ 은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골동반(骨董飯, 汨董飯), 골동(骨董, 汨董), 혼돈반(混沌飯) 등 한자로 표현되었으며, 부르기는 ‘부빔밥’ 이라고 함에 따라 부빔밥에 맞는 부비반(桴排飯)이라는 한자도 만들어졌다. 이는 비빔밥이라는 실체를 두고 한자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빔밥’ 은 이러한 한자로 표기되기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글 ‘비빔밥’ 명칭은 1810년 『몽유편(夢諭篇)』에 브뷔음으로 처음 등장하고 부뷔음, 부빔밥, 부뵤밥, 부뵤음밥, 부뷔음밥으로 다양하게 기록되다가 오늘날 비빔밥으로 정착되었다(정경란, 2015: 603). 이러한 비빔밥을 잘 표현한 고운기(2015)의 시를 살펴보자.

혼자일 때 먹을거리치고 비빔밥만한게 없다,  
여러 동무들 이다지 다정히도 모였을까,



함께 섞여 고추장에 적절히 버물려져  
 기꺼이 한 사람의 양식이 되려 간다,  
 허기 아닌 외로움을 달래는 비빔밥 한 그릇  
 적막한 시간의 식사  
 나 또한 어느 큰 대접 속 비빔밥 재료인 줄 안다,  
 나를 잡수실 세월이여, 그대도 혼자인가,  
 그대도 내가 반가운가,

‘비빔밥’에는 어울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우리가 ‘비빔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철학은 어울림이다. 어울림은 함께 조화롭게 팀워크를 발휘하는 것이다.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며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비빔밥’은 여러 음식이 어울려 새로운 맛을 낸다. 따로 떼어놓고 맛을 보면 그 맛이 나지 않는다. 여러 음식의 어울려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다(이학준, 2019). 이는 무지개처럼 색이 통합하여 아름다운 색을 만드는 이치와 같다. 통합체육 또한 장애, 비장애, 다문화, 탈북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들이 어울려서 배우고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통합체육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은 장애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

장애를 숨긴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것을 감출 필요도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해지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주어진 여건이 나 어려움을 탓하거나 피하려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다른 장애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며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경험을 교환하면서 얻은 결과였다(고정옥, 2013: 2).

위 인용문은 장애인으로 사는 고정옥 작가의 경험담이다. 어울림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재미뿐만 아니라 능률도 배가 오른다. 농촌의 농악이 대표적이다. 우리 조상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노동의 고통을 농악과 함께 잊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한쪽에는 농악을 연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농악을 통해 흥겨운 리듬에 노동의 피로를 잊고 일을 할 수 있었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덜 들고 일의 능률도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 품앗이가 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공존하는 방법이다.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 돕는 일을 했다. 그 아름다운 풍습은 계로 이어져 전승되고 있다.

한국인의 일상식사를 구성하는 <밥+국+반찬>의 구조가 <밥+반찬>의 조합으로 비빔밥을 만들어냈다. 곧 비빔밥은 “먹기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되었다. 이 점은 20세기

이후 각 지역의 식당 메뉴로 비빔밥이 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밥과 함께 비빔밥은 공급자나 수요자가 끼니를 해결하면서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 사회의 도시화도 비빔밥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사건이었다(주영하, 2010: 5).

위 인용문에서 우리는 ‘비빔밥’이 어울림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비빔밥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고 남은 음식을 섞어 먹는 것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비빔은 섞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맛을 창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섞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며 어울림이 실재적이며 더 적합한 표현이다. 어울림은 혼합이 아니라 융합이다. 어울림은 융합하여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비빔밥’은 편리하고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일상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 통합체육은 다양한 학생 중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지 않고 어울려 융합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한다.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이치를 비빔밥은 담고 있다. 어울려야 삶의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 e스포츠와 어울리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유가의 어울림 철학에도 보편과 특수, 다양한 문화가 어울림으로 부당한 차별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과 다름 및 보편과 특수는 ‘보편에서 특수’가 아니라, ‘특수에서 보편’으로 이다. 이러한 같은과 다름에 대한 유가의 어울림 철학은 ‘다문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면에 사상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이철승, 2015: 119).

e스포츠는 단체전이다. 단체전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어울리기이다. 단체전의 약점은 어울리지 못하면 일체감에서 발휘하는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울림은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구성원의 조화와 균형이다.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경기를 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다. ‘비빔밥’이 어울림의 미학처럼 잘 비겨서 독창적인 맛을 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각자의 역할을 맡은 다섯 명이 서로 어울려 팀워크를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섯 명의 상호 존중과 조화가 요구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배려는 중요하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 명이 모여 함께하는 것이란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 3. ‘곰탕’ 과 기다림의 철학

‘곰탕’은 폭 고아서 끓인 탕이다. 끓인 탕에는 설렁탕도 있다. 하지만 곰탕과는

차이가 있다. ‘곰탕’은 양지와 사태 등 고기 위주로 끓여내며 끓일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반면에 설렁탕은 사골과 뼈를 오래 고아 만들어 국물이 뿌얇게 우려난 것으로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곰탕에는 기다림의 철학이 담겨 있다. 곰탕은 오랫동안 끓여야 맛이 난다. 단기간에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음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곰탕에서 기다림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 학생은 기능, 지식, 태도의 학습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늦을 뿐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면 성공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급함으로 기다려 주지 않고,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다. 기다림이 장애 학생에게 절실히 필요한 철학이다.

기다림은 단순한 무관심과는 다른 어떤 것이며, 오히려 기다림은 제멋대로 서둘러서 시간의 흐름을 앞지르려는 것을 단념하고 사태 자체가 자신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서 전개 되도록 시간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다. 기다림은 시간과 일치해서 사는 것이다. 기다리는 인간은 모든 자신과 관계있는 사건들에 조급함이 없이 알맞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러나 또한 자기 자신의 고유한 행동에도 자신에게 인색함도 낭비도 없는 적절한 시간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기다림은 어떤 방식으로 교육자의 큰 덕목이 된다(Otto Friedrich Bollnow, 1990: 158).

통합체육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통합이 아니다. 교수적 통합이 필요하다.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과정에서 장애 학생이 학습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다려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장애 학생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3단계로 구분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목표설정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통합체육에서 장애 학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e스포츠와 기다리기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정신적 의미도 담고 있다. 기다림에 대하여 주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역』이 말하고 있는 기다림은 이와 같은 음양의 관념에 바탕을 둔 이해를 요구한다. 기다림은 위험 앞에서 사태를 관망하는 정적인 행동이 그 외형적 모습이다. 그러나 그 정적인 모습은 성숙이라는 내면적 약동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기다림은 현실에 대한 피동적 대응의 자세가 아니라, 긴 안목 속에서의 기획하는 삶의 태도이다(하창환, 2009: 71).

이하에서 온라인 통합체육에서 e스포츠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e스포츠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료를 기다려 주는 것이 미덕이 필요하다. 잘하지 못해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급함보다는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

이 승리에 도움이 된다. 전문선수가 아닌 이상 맹목적인 승리보다는 함께하기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가 과열되면 욕설이 등장하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인내라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함으로 경기에서 패배할 수 있다. 팀원의 능력은 다르다. 잘하는 선수가 있고 반면에 잘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다. 일단 팀으로 구성했다면 서로의 장단점을 융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며 동료가 경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e스포츠는 전통 스포츠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초를 다투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e스포츠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한판’ 경기가 아니라, 경기 순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집중력은 선수와 동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다림의 연습 시간과 상호이해가 전제될 때 순간적인 집중력이 강화될 수 있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 말(음식)로 통합체육의 철학함을 통해 우리 음식이 담고 있는 통합체육철학적 함의를 탐구하였다. 우리 음식에는 다함께, 어울림, 기다림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이들 철학이 음식의 맛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통합체육을 위하여 우리 음식이 담고 있는 철학의 현실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음식에서 기운을 얻어 기운찬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말에서 우리 철학의 기운을 얻어서 우리 통합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기운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합체육에서 활용되는 용어를 우리말로 전환하는 일과 함께하기, 어울리기, 기다리기의 철학이 실천해야 한다. 우리 말로 생각하고 우리 글로 표현하는 곳에서 우리 통합체육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통합체육에서 e스포츠를 활용하는 수업과 연구성과가 쌓이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e스포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함께하기, 어울리기, 기다리기의 철학을 활용한다면, e스포츠를 통한 성공적인 통합 체육수업을 기대할 수 있다.

‘함께 살자’ 라는 구호처럼 통합체육도 ‘함께 하자’ 라는 구호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해야 진짜 통합체육이며 즐거움도 배가 된다. 이러한 통합체육철학이 전제되어야 ‘모두를 위한 e스포츠’ 의 길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Chung, K. R. (2015). The history of Bibimbab.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 15(11), 603-615.  
 [정경란 (2015). 비빔밥의 역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603-615.]
- Ha, C. H. (2009). The meaning of ‘waiting’ in The Book of Changes.  
 [하창환(2009). <주역>에 나타난 기다림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81, 71-97.]
- Han, S. W. (2016). *The language of our food: literature, a dining table prepared by a Korean scholar*. Seoul: Across.  
 [한상우 (2016). **우리 음식의 언어: 국어학자가 차려낸 밥상인문학**. 서울: 어크로스.]
- Joo, Y. H. (2010). A Study on Evolution and Discourse of BIBIMBAB. *Society &History*, 87, 5-38.  
 [주영하 (2010). 비빔밥의 진화와 담론 연구. **사회와 역사**, 87, 5-38.]
- Kim, B. H. (2002). Philosophical methods and tasks of special education: Raising the intellectual theory of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3(1), 135-145.  
 [김병하 (2002). 특수교육의 철학적 방법과 과제: 특수교육 지식인론의 제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1), 135-145.]
- Kim, B. H. (2019). Establishment of the philosoph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of hope and dign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3), 261-288.  
 [김병하 (2019). 한국 특수교육철학의 정립: 희망과 존엄의 교육.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3), 261-288.]
- Kim, B. K. (2021). Special education in Korea (Daegu University). “Philosoph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2(2), 233-251.  
 [김병하 (2021). 우리나라(대구대)에서 특수교육 ‘철학하기’.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22(2), 233-251.]
- Kim, S. S. (2015). Our philosophy and philosophical practice. *philosophical Inquiry*, 40, 330-343.  
 [김석수 (2015). 우리의 철학과 철학실천. **철학탐구**, 40, 303-343.]
- Kim, Y. S., Park, D. G. (2012). A Study on the educational value of cooperative games and the method of applying to phys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4), 625-642.  
 [김영식, 박대권 (2012). 협동적 게임의 교육적 의미와 적용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625-642.]
- Ko, J. W. (2013). *Radish Kimchi*. seoul: Santi.  
 [고정욱 (2013). **깍두기 인생론**. 서울: 산티.]
- Ko, U. G. (2015). *Half*. Seoul: Knowledge that makes knowledge.

- [고운기 (2015). **반쯤**.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Lee, H. J., Kim, N. J., Kim, Y. W. (2017). Philosophy of Universal Design and educational philosophy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2), 25-40.
- [이학준, 김남진, 김용욱 (2017). 보편적 설계의 철학과 보편적 학습설계의 교육철학.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2), 25-40.]
- Lee, H. J. (2019).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of Waiting and Matching: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Based on UDL.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7*(2), 65-76.
- [이학준 (2019). 기다림과 어울림의 통합체육: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통합체육.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 7**(2), 65-76.]
- Lee, H. J., Kim, Y. O. (2019). UDL philosophy and its implication of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4), 27-36.
- [이학준, 김용욱 (2019). 보편적 학습설계 철학의 통합체육적 함의.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4), 27-36.]
- Lee, H. J., Hwang, O. C., Kim, Y. S. (2020). Direction of eSports Education after COVID-19. *Esport Research: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Sport Studies, 2*(1), 28-37.
- [이학준, 황옥철, 김영선 (2020). 코로나19 이후 e스포츠 교육의 방향. **e스포츠연구: 한국e스포츠학회지, 2**(1), 28-37.]
- Lee, D. S. (2015). Relationship between Sameness and difference and Confucian Eoullim (Consonance) Philosophy : A Study on the Particular and Universal relationships of Multicultural Society Lee Cheol Seung Confucian Eoullim. *Society & Philosophy, 26*(3), 119-148.
- [이철승 (2015). 같음과 다름의 관계와 유가의 어울림 철학: 다문화 시대 특수와 보편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6**(3), 119-148.]
- Otto Friedrich Bollnow. (1990). *The anthropology of education*. Seoul: Munumsa.
- [Otto Friedrich Bollnow. (1990). **교육의 인간학** (오인택, 정혜영 역). 서울: 문음사.]
- So, Ra & Hah, H. J. (2019). The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play with on the social interac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non-disabled children's attitude of disability acceptance.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4*(2), 127-149.
- [소라, 하주현 (2019). <깎두기>가 있는 전래놀이가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비장애아동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14**(2), 127-149.]
- Yun, S. S. (1988). The history of Kimchi.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 Cookery Science, 4*(1), 89-95.
- [윤서식 (1988). 김치의 역사. **한국조리과학회지, 4**(1), 89-95.]

<국문 초록>

## 우리 말로 통합체육을 철학함

이 학 준

---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말로 통합체육을 철학함이다. **[방법]** 이를 위하여 우리 음식이 담고 있는 우리 철학을 찾아내고 그것이 통합체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하였다.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음식의 통합체육철학적 함의를 깍두기, 비빔밥, 곰탕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밖에 다른 음식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후에 다른 음식의 철학을 탐구하려고 한다. 첫째, 깍두기와 다함께의 철학이다. 소외와 배제 없는 다함께 놀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둘째, 비빔밥과 어울림의 철학이다. 비빔밥은 어울림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재료를 함께 비벼서 독특한 맛을 낸다. 그것은 융합과 창조 의 맛이다. 셋째, 곰탕과 기다림의 철학이다. 통합체육에서 각자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다림이라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음식이 통합체육에 주는 세 가지의 철학은 e스포츠의 활용에서도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 e스포츠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긍정적 차원에서 e스포츠 교육에서 함께하기, 어울리기, 기다리기의 철학을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통합체육, 깍두기, 비빔밥, 곰탕, e스포츠

---

논문 접수(Received): 2021. 11. 04. / 심사 시작(Examined): 2021. 11. 04. / 게재 확정(Accepted): 2021. 11. 17.